

복음과 율법 1장.

“6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7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8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1:6-9)

그렇다면 복음이 뭔가 할 때, 그건 단순히 압축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간단한 것이 아닌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 라고 외치는 것은 어느 교회나 다 인정합니다. 심지어 이단들도 ‘예수가 그리스도’ 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교묘하게 비틀어 놓습니다. 그러니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용을 명확하게 복음이 뭔가를 정리해야 하는데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 라는 구원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율법주의가 교묘히 들어와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 함을 얻는다’ 는 복음의 내용을 훼손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일단 명확한 ‘복음과 율법’ 에 대해 정의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가지 질문을 합니다. “누군가 그리스도께로 나오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버려야 한다.”

어떻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서 생각하실 것은 회개는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선결 조건인가 하는가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을 던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어떤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 만이 조건이요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 열매로 예수님과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며 회개조차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에 있어 다른 어떤 조건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누군가 그리스도께로 나오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버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라는 문장은 싱클레어 퍼거슨이란 학자의 분석으로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표현을 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 믿음에 회개라는 행위를 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고 여기게 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율법 : 하지만 목사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오려면 이사야 55장 1절에 “목마른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고 하셨으니 먼저 목마름이 있어야 하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확장해서 이해하면 목마름이란 것이 조건이라면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에 있어서도 참된 회개 없이 오지 말라는 뜻이라고 생각해요.

김복음 목사: 그러나 이사야서의 그 본문에서 목마른 자는 기회를 말하는 것이지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그래서 그다음에는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고 하여 ‘돈 없는 자’ 라고 하여 너희에게는 어떤 조건도 없이 기회가 주어졌다’ 고 하신 것처럼 ‘목마른 자’ 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건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

라” 라고 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제가 질문을 할게요. 율법
씨는 사람이 믿기 전에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
요. 회개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이율법: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서 자기 여러 죄로 하나님을 거스른 것을 슬퍼하고
에통해하고서 모든 죄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생각해요.

김복음 목사: 그럼 율법 씨는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오기 전에 이 모든 것
을 참되게 해야 한다고 말할 거예요?

이율법: 예. 물론이죠. 저는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김복음 목사: 그렇다면 율법 씨는 불가능한 것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경건한 자기 낮춤과 참된 회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려드리는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회개를 통해
그리스가 주시는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
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 때문에 회개도 성립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를 쉬게 하리라” 고 하실 때, 여기서 ‘수고하고’ 와 ‘무거운 짐’ 은 그리스도께로 가기 위
한 자격이 아니라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누구든지’, 그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요구하지 않고 자격이 없는 자들까지도 그리스도께로 초대의 대상이라는 것을 말하죠?. 그런
점에서 성경에서 ‘회개하라’ 는 선포나 요구가 있을 때, 그런 내용이 조건처럼 보이지만 그
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는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누구나 기회가 있다는 겁니
다. 그래서 행함을 강조한 야고보 사도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17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
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
림자도 없으시니라 18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고 하신 겁니다.

명확하게 기억을 위해 압축하면

* 율법 = 명령 VS 복음 = 약속

그러니까 율법은 “이렇게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산다” 는 겁니다. 반면 복음은 “내가 너를 위해서 다 했다. 그러므로 너는 살게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율법은 조건적 성격을 가집니다. 영어로 하면 ‘If(만일) / then(그러면)’ 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형식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because(때문에) / therefore(그러므로)’ 란 내용으로 “내(하나님)가 너를 위해 행하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 살게 되었다” 는 형식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

율법=명령	복음=약속
“이렇게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산다” If(만일) / then(그러면)	“내(하나님)가 너를 위해 무엇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 살게 되었다” because(때문에) / therefore(그러므로)
“모든 것이 내게 달려 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달려 있다.”
명령 = 우리가 행해야 할 내용	약속 =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

질문.

1.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 장애는 율법과 복음의 혼동이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
2. “누군가 그리스도께로 나오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버려야 한다” 는 명제가 왜 틀린 것입니까?
3.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을 정리해보십시오.
4. 율법과 복음을 혼동할 때 발생하는 문제는 ‘신앙은 나 하기에 달려 있다’ 는 잘못된 생각, 즉 이미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성취하신 율법의 요구를 스스로 성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그럴 때, 결론은 자기 의가 된다는 것에 대해 드는 생각이 있습니까?